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독일, 물류성과지수 3개년 연속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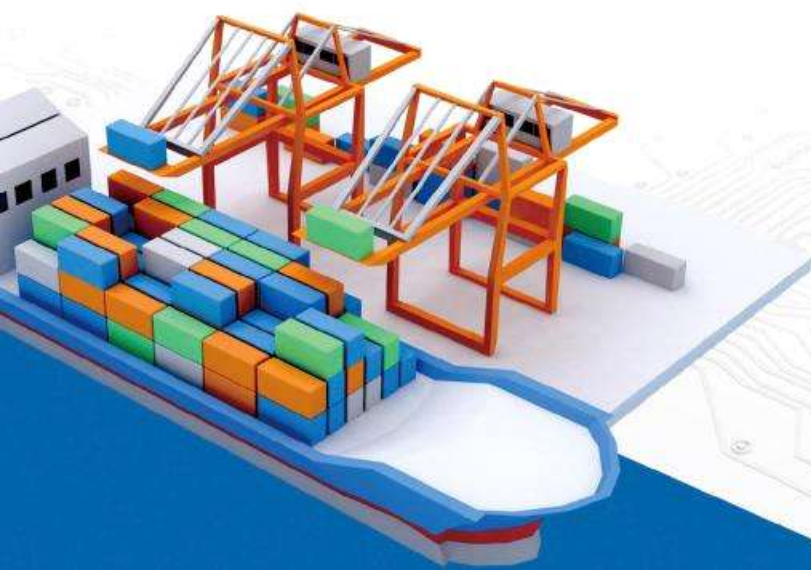
물류정책·산업동향

1. 홍콩항, 항만물류 경쟁력 제고 위해 터미널 간 통합 추진
2. 관세전쟁으로 세계 무역 쇠퇴 전망
3. 물류허브로 부상하는 태국
4. APM Terminal사, 칠레 내륙물류기지 보안·안전관리에 드론 활용

명사 스피치

“현재 포워더 업종은 진입장벽이 아주 낮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업체가 난립함으로써 각각 나눠먹는 구조로 일명 ‘제 살을 깎는 출혈 경쟁’입니다. 그러므로 물류산업 발전에 있어 어느 정도 진입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최저 물류비를 지향하는 시장풍토가 아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물류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 되었으면 합니다.”

황해영 월드로드해운항공(주) 대표이사
(2018. 9. 3. / 코리아슈핑가제트 인터뷰 기사)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독일, 물류성과지수 3개년 연속 1위

-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는 2년 마다 160여 개국을 대상으로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를 발표하고 있으며 2014년, 2016년, 2018년의 3개년 물류성과지수 1위는 독일임
 - 물류성과지수는 전 세계 물류종사자(포워더, 선사 등)가 각국의 통관, 기반시설, 국제수송, 물류품질 및 역량, 화물추적, 정시성 등 여섯 가지 분야의 '질'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한 것임
 - 독일의 경우 2018년 기준 종합 물류성과지수 4.2(통관 4.09, 기반시설 4.37, 국제수송 3.86, 물류품질 및 역량 4.31, 화물추적 4.24, 정시성 4.39), 2016년 4.23, 2014년 4.12로 3개년 연속 1위임
 - 이는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독일의 지리적 이점 및 물류부문과 4차 산업혁명 기술 간 적극적인 연계 추진 전략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2018년 기준, 물류성과지수 상위국의 대부분은 유럽지역이며 아시아지역 중 일본, 싱가포르만이 상위 10개국에 포함됨
 - 일본은 종합지수 4.03점으로 5위이며 싱가포르는 7위임(종합지수 4점)
 - 우리나라는 종합지수 3.61점으로 25위에 그침
-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항의 원스탑 서비스 제공 등 지속적인 물류환경 개선 결과, 2016년 기준 155위에서 2018년 7위로 대폭 상승함
 - 이외에도 2016년 기준 하위권에 있던 핀란드(136위), 아랍에미리트(80위), 남아프리카(158위) 등이 2018년 기준 각 10위, 11위, 33위로 대폭 상승함
 - 반면 가봉, 우루과이는 2016년 기준 각 16위, 10위 였으나 2018년 기준 150위, 85위로 대폭 하락함

2018년, 2016년, 2014년 물류성과지수 상위 10개국

국가	2014		2016		2018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독일	4.12	1	4.23	1	4.20	1
스웨덴	3.96	6	4.20	3	4.05	2
벨기에	4.04	3	4.11	6	4.04	3
오스트리아	3.65	22	4.10	7	4.03	4
일본	3.91	10	3.97	12	4.03	5
네덜란드	4.05	2	4.19	4	4.02	6
싱가포르	4.00	5	4.14	5	4.00	7
덴마크	3.78	17	3.82	17	3.99	8
영국	4.01	4	4.07	8	3.99	9
핀란드	3.62	24	3.92	15	3.97	10

자료 : <https://lpi.worldbank.org>

■ 참고자료 : <https://lpi.worldbank.org>, 2018.9.4.

조지성 전문연구원

051-797-4916, jisungjo@kmi.re.kr

물류정책·산업동향

홍콩항, 항만물류 경쟁력 제고 위해 터미널 간 통합 추진

- 최근 홍콩항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및 증가하는 항만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세계 컨테이너허브 항만으로의 재도약을 위해 5개 주요 컨테이너터미널 통합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최근 Hong Kong's Hang Seng Management College(HSMC)는 홍콩항은 컨테이너선박의 초대형화 및 해운얼라이언스 간 대형화로 터미널 내 환적(Inter-terminal transfers(ITTS))이 증가해 환적화물 처리를 위한 선사의 물류비용(Terminal Handling charge, 양·적하 비용 등), 터미널 장비 운영을 위한 항만의 운영비용, 환경비용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 2017년 해운얼라이언스 재편 이후 홍콩항을 기항하는 정기선 항로는 북유럽 항로 및 지중해 항로를 포함해 5개 항로가 감소한 반면 경쟁 항만인 싱가포르항은 7개의 신규 정기선 항로가 개설되는 등 최근 홍콩항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음
 - 홍콩항 컨테이너물동량 중 환적물동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 약 40%에서 현재 약 70% 수준으로 1.5배 이상 증가 했으나, 5개 터미널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이로 인한 터미널 내 환적인 ITT 물동량이 전체 환적물동량의 약 15%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홍콩항은 항만운영 비용 및 항비 감축, 생산성 증대를 위한 터미널통합을 추진할 계획임
 - 홍콩항은 ITT 화물처리 비용 증가로 인해 인근 경쟁항만인 싱가포르항, 선전항, 상하이항 등에 비해 약 272달러의 추가적인 물류비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선전항 및 싱가포르항의 Terminal Handling Charge는 홍콩항의 약 50% 수준임
 - 홍콩항은 향후 터미널 통합으로 ITT 물동량을 현재 수준 대비 약 50% 이상 감축해 환적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
 - HSMC는 원활한 터미널 통합을 위해 터미널 간 선석 및 야드, 항만시설(크레인 등)의 공유가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밝힘

홍콩항 터미널 내 화물처리 전경

출처: https://www.joc.com/port-news/asian-ports/more-hong-kong-terminal-collaboration_20180828.html■ 참고자료 : <https://www.joc.com/port-news/> 2018.08.28.

이주원 연구원

051-797-4667, peterlee@kmi.re.kr

관세전쟁으로 세계 무역 쇠퇴 전망

-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면서 2018년 8월 세계 무역은 1.3% 감소함
- 월간 글로벌 퀴네앤드나겔 지수(gKNi; Global Kuehne+Nagel Indicator)의 세계무역지표(World Trade Indicator)에 따르면 두 경제대국 간의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7월의 시장 강세로 무역은 꾸준히 지속되었음
 - 그러나 세계무역지표는 국제협약과 금융기관에 대한 압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신중해지고 있다고 지적함
- 일부 아시아 국가가 전년대비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보이는 등 신흥국가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gKNi는 2018년 9월까지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일본, 한국, 인도의 수출이 각각 10.2%, 11.8%, 9.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만(8%)과 브라질(4.8%)의 손실도 예상됨
 - 중국의 수출 증가율(YoY)이 7월 12.2%에서 8월에 7%로 하락했으며,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따른 제조 위축 및 위안화 가치 하락 등으로 이러한 추세는 9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9월 6일 발효될 예정인 중국에 대한 2,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음
- gKNi에 따르면 현재 세계 무역 수지는 제조생산 예측치와 일치하며, 2018년 9월에는 2015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월별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함
 - gKNi는 7월의 시장 강세 이후 부정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무역 긴장의 영향에 민감한 이머징 시장의 성장이 가장 둔화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9월에는 한국, 일본, 대만, 인도, 브라질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언급함

■ 참고자료 : <https://www.porttechnology.org> / 2018.09.04.

이기열 전문연구원

051-797-4670, kylee@kmi.re.kr

물류허브로 부상하는 태국

- ‘10년부터 ’13년까지 인도차이나 반도 지역의 물류센터에 대한 FDI¹⁾는 22%에서 122%로 증가함
 - 다국적 기업은 아세안 시장에서 증가하는 고객과 제조비용 등으로 인해 태국에 제조공장, 도매, 소매 및 무역시설 등에 투자 및 건설을 진행함
 - 특히 EU 및 일본의 투자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제약 및 전자기기가 주된 타겟 시장이었음
 - 더욱이 태국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및 캄보디아 등의 국가로부터 관세가 줄어들어 무역량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AEC 또는 ASEAN 간의 세관 업무 협조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태국은 동남아, 인도차이나, 중국 본토 및 기타 아세안 지역을 잇는 육상물류 요충지라는 지리적 특징을 가짐
 - 태국은 동서남북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4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태국의 77개 주 중, 32개주가 다른 국가와 5,582km 접해 있음
 - 또한 1,320km에 달하는 ‘미얀마-태국-라오스-베트남’ 동-서 경제도로와 2,000km에 달하는 ‘태국-라오스-중국’ 남-북 경제도로, 1,020km에 달하는 ‘태국-캄보디아-베트남’의 남부경제도로가 있음
 - 특히 동-서 경제도로는 태국, 라오스부터 베트남 항구까지 이르는 최단경로로, 도로-항만 복합운송이 가능해 운송 비용 절감효과가 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음



자료 : Thailand: ASEAN's Logistics Hub; Thailand Board of Investment

■ 참고자료 : Thailand: ASEAN's Logistics Hub: Thailand Board of Investment, 2018.09.05.

이찬빈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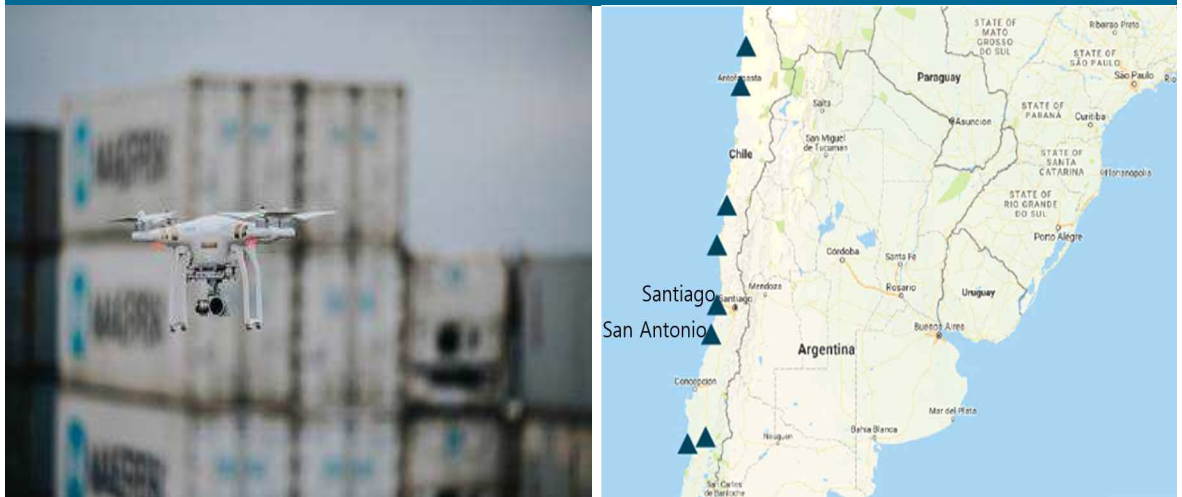
(051-797-4690, cblee7645@kmi.re.kr)

1)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APM Terminal사, 칠레 내륙물류기지 보안·안전관리에 드론 활용

- APM Terminal사는 칠레의 산안토니오(San Antonio) 및 산티아고(Santiago)지역에 위치한 내륙물류기지에서 드론을 활용한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총 3개의 드론 중 하나는 산티아고, 나머지 두 개는 산 안토니오의 내륙물류기지에서 사용 중임
 - 현재 칠레 내에서 APM Terminal사가 운영 중인 내륙물류기지는 총 8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은 아리카(Arica), 이키케(Iquique), 발파라이소(Valparaiso), 산안토니오(San Antonio), 산티아고(Santiago), 탈카우아노(Talcahuano), 푸에르토몬트(Puerto Montt) 및 푼타아레나스(Punta Arenas)임
- 안전 관리자들이 내륙물류기지 내의 하역장비 및 적재된 컨테이너 등에 의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드론의 활용은 효과적임
 - 2016년부터 터미널 운영에 드론을 도입한 APM Terminal사는 이를 통해 터미널 내 작업 현황, 교통 흐름, 컨테이너의 효율적인 적재 등을 모니터링 할 뿐만 아니라 터미널 안전에 위협적인 작업자의 활동까지 감지하고 있음
 - APM Terminal사의 라틴아메리카 책임자인 Hector Espinoza씨는 드론의 출현은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옥상이나 고공 장비인 크레인의 점검 또한 수월하게 해줌으로써 내륙물류기지 관리·운영의 가시성을 상당히 향상시켰다고 강조함

터미널에서 사용 중인 드론과 칠레에 분포한 APM Terminal사의 내륙물류기지



자료 : <https://www.apmterminals.com>

- 또한 드론에 적용되는 기술발전에 따라 현재는 야간 비행을 위한 센서, 지상에 있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스피커 기능 등이 탑재됨
 - 드론은 위치정보에 따라 반경을 설정하는 지오펜싱(geofencing)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비행할 수 있는 구역이 정해짐
 - 드론 조종사는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인력에 전화를 하거나 날아갈 수 있으며 터미널 내 위험한 행동을 하는 트럭운전자들에게 스피커를 통해 주의를 줄 수도 있음



- 한편 국내 항만·물류분야에서는 드론이 터미널 감시 및 배송서비스 등에 활용됨
 - 부산항보안공사는 드론을 통해 선원이탈 및 보안구역 내 위험행동 감시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 울산항은 물류터미널과 해상선박 간 선용품 배송에 드론을 도입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2018년말 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인천항은 밀입국 및 밀수 범죄 감시 등을 위해 도입을 검토 중임
- 향후 드론과 같은 비교적 저비용 고효율의 보안장비가 다른 터미널과 물류시설에도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드론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드론 운용 인력의 확보 및 항만 보안구역 내 드론 비행을 위한 국방부 승인 등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함

■ 참고자료 : <https://www.apmterminals.com>, 2018.08.30.
<https://www.apmterminals.com>, 2018.09.04
<http://www.ulsan.go.kr>, 2018.09.04
<https://www.icpa.or.kr>, 2018.09.04

김가현 전문연구원

051-797-4692, ghkim@kmi.re.kr